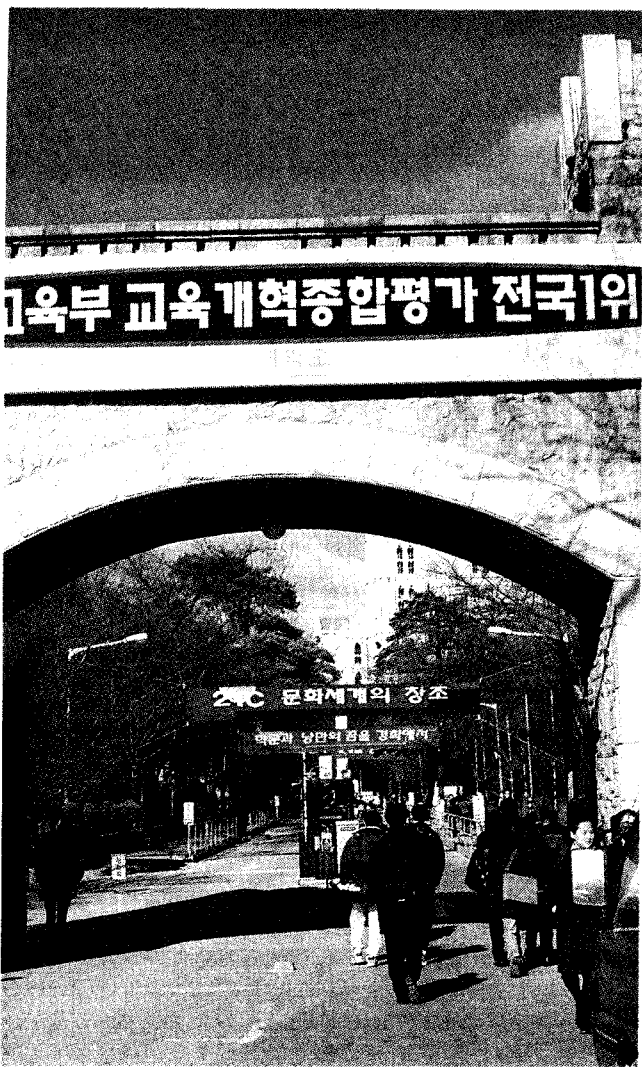


□ 경희의 변화된 모습들



'97 경희 발전' 계속됩니다



지난 97년에 이루어진 우리학교의 변화와 개혁의 모습은 자타가 인정하는 경희의 도약을 이룩하는 기반이 되었으며 우리가 이룬 성과에 대한 전체적인 공유는 밝은 미래를 위한 초석으로 평가된다

IMF한파와 교육시장개방 등으로 인한 대학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각 대학간의 개혁과 변화들이 가속화되고 있다. 성급하게는 대학간 빅딜을 주장하는 의견까지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에 가해지는 시대의 변화요구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으로 단행해야 하는 사안으로 다가온다.

우리학교의 경우 97년도 대학개혁분야 1위를 거두는 등 대학개혁을 위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경주해 왔으며 현재 과학기술 육성 및 취업난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서 제기되고 있는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정보통신 인큐베이터(창업지원센터)를 유치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교육의 새로운 전형으로 평가되는 가상대학분야에서 8개 대학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97년에 이루어진 우리학교의 변화와 개혁의 모습은 자타가 인정하는 경희의 도약을 이룩하는 기반이 되었으며 우리가 이룬 성과에 대한 전체적인 공유는 밝은 미래를 위한 초석으로 평가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주요사안들을 중심으로 97년에 이룩한 경희의 변화와 모습에 대해서 살펴본다. <편집자>

7백68명 정원 대폭 증원

학부 5백10명, 대학원 2백58명이 증원되어 학부 입학정원이 총 5천4백81명, 대학원 입학정원이 총 2천55명으로 조정되었다.

서울캠퍼스의 경우 1백70명이 증원되었으며 학과별로 살펴보면 △간호학과(야) 50명(3학년 편입) △한약학과(주) 20명 △언론정보학부(야) 50명 △의료경영학과(야) 50명 등이다.

수원캠퍼스는 총 3백40명이 증원되었다. 학과별로 살펴보면 △중앙학부(야) 80명 △서양학부(야) 80명 △경영학부(야) 1백20명 △체육학부(야) 60명 등이다.

한편 대학원의 경우 석사 45명, 박사 8명, 특수대학원 2백5명 등 총 2백28명이 증원되었다.

호텔경영전문대학 4년제 대학으로 승격

97년 11월 28일 확정된 호텔전문대학(호전)의 4년제 승격은 경희대학교 전체 차원에서 3백60명의 정원이 증원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올해 관광학부(야간) 2백40명, 급식산업학과(야간) 40명, 조리학과(야간) 80명 등 총 3백60명을 선발한 관광대학은 앞으로 3차 서비스 산업에서의 전문인력을 본격적으로 양성할 예정이다.

그러나 기존의 호전 재학생들은 전문대학 학사 운영에 맞춰 생활하게 된다.

교육개혁평가 전국1위

지난 96년 교육개혁추진 우수대학 평가에

우리학교는 대학 개혁을 위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경주해 왔으며...

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 정부로부터 총 13억원을 지원받은 우리학교는 연이어 97년에 실시한 같은 평가에서 1위라는 쾌거를 획득했다.

이번 평가에서 우리 학교가 높이 평가받게 된 부분은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살리는 학생선발' 부문으로 98학년도 신입생 선발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한 학교장 추천 전형, 자기소개서 전형, 토익·토플 전형 등의 실시가 이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평가 뿐 아니라 지난 해 중앙일보를 포함, 각 언론사에서 실시한 각종 대학평가에서도 우리학교가 상위권을 차지해 향후 우리학교에 대한 평가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탈 것으로 추측된다.

수원캠퍼스 대학종합평가 최우수예상

97년 11월에 실시한 수원캠퍼스 대학종합평가는 현재 교육부에서 심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대체적으로 좋은 결과를 예상하고 있다.

도서관 규모와 동서 한방임상센터의 유치, 영통지구 입주 등으로 인한 발전가능성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명실상부한 종합대학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약학과, 간호학과 평가 최우수교 선정

교육부의 대학종합평가와 함께 병행하여 진행되고 있는 각 학과별 평가에서 우리학교 약학과와 간호학과가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또한 대외적으로 실시되는 의·약사고시와 간호사고시에서 상승세의 활약을 보이고 있다.

아태국제대학원 신설

평화복지대학원내 국제실무전문인력 양성 과정으로 시작한 아태국제대학원은 국제대학

정보통신부주관 창업지원센터 선정

지난 12월 신청, 올해 1월 확정된 정보통신 창업지원센터는 우리학교와 정보통신부가 공동투자하여 벤처기업을 지원, 육성하기 위한 센터를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총 12억여원이 소요되는 창업지원센터는 산업구조조정과 취업난 극복의 대안으로서 제기되고 있는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더 나아가 창업할 수 있는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인재의 배출을 목표로한 대학의 기능을 극대화하는 전진기로서 역할을 할 계획이다.

가상대학 실험기관 선정

교육부에서 선정하는 가상대학 실험기관 선정에 우리학교가 주도한 한국가상대학 연합이 선정되었다.

따라서 다음 학기부터는 한국가상대학 연합에 소속된 대학들이 개설하는 32개 강의를 수강할 경우 우리학교 학업과 동등하게 학점을 인정 받는다.

대운동장 지하주차장 무상건설

서울캠퍼스에서 현재 가중되고 있는 주차장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대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방안이 (주)나산건설의 무상건설 제안에 따라 현실화된다.

주차장 건설이 완료되면 정문으로 출입하던 차량은 치대입구쪽으로 드나들게 된다. 그러나 경제불황으로 인해 정확한 착공일자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외국대학교와 자매결연

우리학교는 지난해 9월 12일 맺은 튀니지 센트럴 대학교의 자매결연을 비롯, 11개 외국대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어 총36개국 1백45개 교에 이르는 많은 자매결연대학을 지니게 되었다.

국내 타대학에 비해 많은 자매대학을 갖고 있는 우리학교는 이처럼 계속적인 교류를 토대로 교환학생과 문물교환 등의 국제적인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더 나아가 경희의 세계화를 다지는 초석이 될 전망이다.

<문화부>

경희대학교

김대중 동문의 제15대 대통령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경희가족일동

